디지털농업기술 개발 식량자급률 향상 '중점'

농진청, 내년 예산 1조961억원 확정… 올해보다 712억원 증액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2021년 예산이 올해(1조 249억원)보다 712억원(7.0%) 증가한 1조961억원으로 확정됐다고 8일 밝혔다. 이는 1962년 농촌진흥청 개청 이래 최대 규모 예산이다.

농진청은 2021년 예산을 통해 노지재배 위주의 디지털농업 기술개발과 청년농업인의 육성, 식량자급률 향상과 농산업 현장의 애로 해소, K-농업기술의 해외 전파·확산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내년도 총 예산 1조961억원의 주요 부문별 예산을 살펴보면, 디지털농업 기술의 개발·확산 763억원, 청년농업인 육성 230억원, 식량자급률 향상 3,444억원, 농산업 현장의 애로해소 4,126억원, K-농업기술 전파·확산 294억원, 기타사업지원 2,104억원 등이다.

특히,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이용한 노지재배 위주의 디지털농업 기술개발·확산과 국산 품종의 개발·보급 확대를 통한 식량자급률 향상 부문의 예산이 확대됐다. 구체적으로 ▲농업공학연구(2020년 104억원 → 2021년 163억원), ▲노지 디지털 중심의 밭농업 생산성 증대기술 개발(15억원 → 80억원) ▲스마트팜 다부처 패키지 혁신기술개발(신규, 178억원) ▲농업위성정보 활용센터구축(신규, 24억원) ▲작물·원예·축산 시험연구(1,637억원 → 1,920억원) ▲북부원예출장소 구축(3 → 109억원) ▲신소득 아열대작물 실증센터 구축(13억원 → 90억원) 사업 예산이 늘어났다.

더욱이 농진청은 기후변화, 돌발병해충 등 농산업 현장의 애로 해소를 위해 ▲농업환경연구(145억원) ▲신농업 기후변화 대응체계 구축(254억원) ▲농축산 미세먼지 저감기술 개발(76억원) ▲과수화상병 등 현안문제 병해충 피해경감 기술(107억원) ▲고위험 식물병해충 격리시험연구동 구축(158억원)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사업(230억원) 등 기후변화 적응 품종과 재배기술 개발, 병해충 종합방제체계 구축 등의 예산을 반영했다.

또한 기술강국 등과의 농업기술협력을 강화하고, 개발도상국 농업발전의 지렛대가 될 K-농업기술의 전파·확산을 위해 ▲국제농업기술협력(33억원) ▲해외농업기술협력(261억원) 등의 예산도 편성했다.

이 외에도 농진청의 내년도 예산에는 새로운 정책 수요를 반영한 신규 예산이 대폭 확대된 것도 주목할 만하다. 신규사업은 농생명 핵심기술의 성과확산과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따른 농경지 환경자원 평가, 축산자원개발부 이전사업 등 총 9개 사업으로 ▲스마트팜 다부처 패키지 혁신기술개발(178억원) ▲바이오그린 연계 농생명 혁신기술개발(214억원) ▲국가 농경지 환경자원 관리기술 개발(75억원) ▲2025 축산현안 대응 기술개발(68억원) ▲축산자원개발부 이전사업(43억원) ▲그린수소 기반 농업시설 에너지공급시스템 개발(38억원) ▲농업위성정보 활용 기반구축(24억원) ▲국가 생명연구자원 선진화사업(19억원) ▲치유농업연구소 기반구축(10억원) 등에 669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허태웅 청장은 "코로나19 극복과 국내 경기 활성화 지원 등을 위해 2021년 예산의 82.4%인 9,032억원을 상반기에 배정하여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경기부양과 조직의 성과를 극대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완주복합행정타운 모아미래도 센트럴시티 1차, 이달 견본주택 오픈

남향 위주 단지 배치 · 4베이 설계 적용

완주복합행정타운 모아미래도 센트럴시티 조감도.

완주복합행정타운 모아미래도 센트럴시티 1차가 이달 견본주택을 오픈하며 입주자 모집에 나설 예정이다.

완주복합행정타운 모아미래도 센트럴시티 1차는 지하 1층~지상 18층, 13개 동 총 879세대 규모로 들어서며, 59㎡/84㎡ 중소형 평형대로 구성돼 있다. 남향 위주의 단지 배치와 4베이 설계를 적용해 채광과 서비스 면적을 극대화했으며, 넓은 동간거리를 확보해 탁 트인 개방감을 느낄 수 있도록 설계했다.

타입에 따라 팬트리, 알파룸(일부 세대) 등을 마련해 공간 활용도를 높였으며, 주차장을 100% 지하화해 지상에 차가 없는 쾌적한 공원 같은 단지를 조성했다. 단지 내에는 대형 중앙광장, 다양한 테마공원이 들어설 예정이며,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로 주변 시세 대비 상대적으로 합리적인 분양가 또한 눈길을 모으고 있다.

넓은 동간거리 확보
탁 트인 개방감 느낄 수 있어

분양가 상한제 적용돼
주변 시세 대비 상대적으로
합리적인 분양가도 '눈길'

모아미래도 센트럴시티 1차가 들어서는 완주복합행정타운은 교통, 상권, 교육 등 생활 기반시설이 풍부하게 조성되어 있으며, 완주복합행정타운 내 공공기관들이 이전에 속도를 내면서 지역주민의 행정편의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효과도 뒤따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대규모 택지개발과 함께 차별화되는 자연 친화적 주거 환경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주거, 상업, 행정기능을 두루 갖춰 완주의 새로운 중심으로 손꼽히고 있다.

완주군청, 완주교육지원청, 한국국토정보공사 완주지사 등 공공기관의 이전 및 신설뿐만 아니라 완주종합스포츠타운이 조성될 예정으로 테니스장, 생활체육공원,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등이 1~4단계 별로 들어선다. 또한 복합문화지구 '누에'로 일상 속 교육, 전시, 캠핑, 공연 등 문화와 예술을 누릴 수 있는 공간과 신봉천 수변공원이 들어설 예정으로 생태공원 산책로를 통해 여유로운 여가 생활권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새만금포항고속도로 완주IC, 순천완주고속도로 완주JC, 호남고속도로 익산JC, 17번 국도 등 전주, 익산은 물론 서울 및 수도권으로 이동 용이하다. 아울러 완주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예정), 완주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완주일반산업단지, 완주전주과학산업단지 등 전북을 대표하는 산업 클러스터가 인접해있다.

완주복합행정타운 모아미래도 센트럴시티 1차 분양 관계자는 "복합행정타운과 삼봉웰링시티 조성, 테크노밸리 2산단과 농공단지 분양 등 인구 유입의 긍정적 요인이 많아 내년부터는 큰 폭의 인구증가를 예상한다"라며, "전주와 인접해 생활권의 공유가 가능한 것도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인근 지역의 부동산 가치가 상승하고 있어 더욱 눈여겨볼 만 하다"라고 전했다.

또한, 국내 주거문화의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가는 모아종합건설은 튼튼한 재무구조로 30여년간 3만1,000여 세대의 아파트를 공급해온 고품격 아파트 브랜드로 관심이 뜨겁다.

완주복합행정타운 모아미래도 센트럴시티 1차의 견본주택은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2가 1332-3번지에 12월 초 오픈 예정이며 분양 관련 더욱 자세한 사항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완주=이종복 기자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4일 감사원의 자체감사활동 심사에서 공단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감사원 자체감사 '우수'

국민연금, 맞춤형 경영수준 종합진단 통해
위험요소 발굴 · 집중감사 실시 '결실' 맺어

국민연금공단(상임감사 이춘구)은 지난 4일 감사원의 자체감사활동 심사에서 공단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공단은 감사원이 실시한 2020년(2019년도 실적) 자체감사활동 심사 결과 2년 연속 최고등급('A' 등급)을 획득함과 동시에 자체감사활동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이다.

공단은 감사 취약분야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내부통제를 통해 부패소지 요소를 발굴, 집중감사를 실시하는 등 감사활동의 품질제고를 위해 노력한 결과다.

아울러, 공단은 올해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직원보호를 위해 비대면(Untact) 화상감사 기법을 도입하고 e-감사시스템을 전면 고도화하는 등 코로나 19 극복을 위해 지속적인 감사를 차단해 청렴문화를 확산시킨 점 등을 인정받아 감사 인프라와 감사 성과 등 4개 전 분야에서 최고등급인 'A' 등급을 획득했다.

특히 공단은 'A' 등급 기관 가운데에서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는 공단이 감사 인력의 전문성 강화, 사전 컨설팅 감사제도 도입 등을 통한 적극행정 활성화, 실지감사 실시 전 수감부서에 대한 맞춤형 '경영수준 종합진단'을 통해 위험업무 혁신에 나서고 있다.

이춘구 상임감사는 "가입자 2200만 명, 수급자 500만 명, 785조원의 적립기금을 관리하는 공단이 자체 감사활동에 대한 감사원 심사에서 2년 연속 최고등급을 획득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활동을 통해 부패 없는 청렴한 조직으로서 국민에게 더욱 신뢰 받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상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

민주, 중점 법안 '공정경제 3법' 중 하나로 전체회의서 의결
사외이사의 경우 감사위원 선임시 단순 3% 의결권 적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에 이어 여당의 중점 처리 법안인 '공정경제 3법' 중 하나인 상법 개정안도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당의 단독 처리에 반발해 안건조정위원회에 이어 전체회의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상법 개정안, 정무위원회에서 통과될 예정인 공정거래법 개정안·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등 공정경제 3법을 9일 본회의에 올릴 예정이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당초 재계의 우려가 제기됐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보유 주식 합산 시 의결권을 3%까지 제한하는 '3% 룰'을 일부 완화했다.

당초 정부안은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 합산 시 최대 3%까지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사외이사의 경우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나 일반주주 관계 없이 단순 3%로 의결권을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사내이사 감사위원 선출 시에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까지만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소수 주주권 행사 시 주식 의무 보유기간은 현행 6개월로 그대로 하기로 했다. 다중대표소송의 경우 원고의 자격을 비상장사는 현행 그대로 1%, 상장사의 경우 현행 0.01%에서 0.5%로 강화됐다.

여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재벌 대기업뿐 아니라 중견기업들의 피해가 가지 않는 방향으로 최대한 고려해서 의결했다"며 "그런 부분을 고려해 (상법 적용을) 약간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전북은행과 함께하는
'가족사진' 전달식 성료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이 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관장 정호영)과 함께 지난 7일 전북은행 본점 1층 로비에서 전북은행과 함께하는 '2020 행복한 추억, 가족사진'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전달식에는 전북은행 김성철 부행장, 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 정호영 관장, 오준규 사진작가, 오름스튜디오 소영섭 사진작가 등이 참석했다.

전북은행은 경제적·지리적인 이유로 가족사진 촬영에 어려움이 많았던 장애인가정, 노인부부세대, 독거어르신을 등을 대상으로 가족 간의 행복감을 높이고 특별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약 3개월 동안 이번 사업을 진행했다.

가족사진 촬영은 전북도 장애인복지관의 이동스튜디오와 오준규 사진작가의 재능기부를 통해 실시됐고, 오름스튜디오 소영섭 사진작가의 협력으로 도내 장애인가정 등 총 110가정에 가족사진 액자를 제작해 전달했다.

김성철 부행장은 "여러 사회복지기관의 협력과 사진작가의 재능기부로 완성된 가족사진을 통해 행복한 추억이 전달되었길 바라며, 전북은행은 금융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모두가 행복하고 더 따뜻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윤상 기자

전북농기원 월동작물 안정생산 현장 활동 강화

내년 2월까지 추진

전북도농업기술원(원장 박경숙)은 내년 2월까지 노지 월동작물과 시설하우스에 대해 월동관리, 병해충 예찰 등 월동작물 안정생산을 위한 기술지원을 추진한다고 강조했다.

올 연초 기상여건으로 저온과 병해충 발생 등으로 밀, 보리의 수확량이 감소하고 품질이 떨어져, 내년도에는 안정적으로 생산하고자 현장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맥류포장 현장조사 결과 일찍 파종한 포장은 5엽 이상 전개되었고 초장 21㎝, 분얼수는 2~3개까지 생육되었다.

한편 농업기술원 박경숙 원장은 7일 군산 등 현장에 나가 월동작물 생육상황을 점검하고 안정적으로 농작물이 월동할 수 있도록 관리 요령 등 기술지원을 강화하도록 당부했고 겨울철은 기상이 갑작스럽게 변화하는 점을 감안하여 이에 맞는 사전·사후 대응책을 마련하여 신속히 대응할 것을 강조했다.

올 겨울 일기예보에 강한 추위가 예보되고 있기에 월동기간에 동해, 서리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배수로 정비 등을 실시해주는 것이 좋다.

전라북도농업기술원에서는 "앞으로 기상상황을 주시하고 상황변화에 따른 맞춤형 기술지도 자료를 제공하고 현장기술지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익산=장양원 기자

전북농협, 로컬농가 비대면
농산물 품질관리 기초과정 실시

전북농협(본부장 박성일)은 생산자가 곧 브랜드인 로컬푸드 출하농가를 대상으로 주요 농산물 품질관리 기초과정을 온라인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오이, 상추, 사과 등 20개 품목에 대해 등급판정기준, 결점과 안내, 최근 동향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는 이번 과정은 자신이 출하하는 농산물의 적절한 진단을 통해 농산물의 상품성 향상, 수취가 증대와 적절한 로컬푸드 가격결정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관심 있는 로컬푸드 출하농가는 유튜브 채널 '전북농협 로컬푸드'에 접속하면 언제 어디서나 품질관리에 대한 기초정보를 얻을 수 있다. /김윤상 기자

착한 임대인 건물에 무상 전기설비 안전점검

전기안전공사, '착한 임대인 운동' 동참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조성완)가 행정안전부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중인 '착한 임대인 운동' 지원에 나섰다.

'착한 임대인 운동'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해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에게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것으로, 지난 2월 전주에서 시작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에 공사는 착한 임대인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펼쳐지고 있으며, 착한 임대인 건물(임차인 점포)에 대해 전기설비 안전점검을 무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안전점검을 원하는 임대인은 내년 6월까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공사는 접수된 신청분에 대해 일정을 조율한 후 내년 12월 말까지 안전점검을 순차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조성완 사장은 "이번 조치가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작은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